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함, 절대적인 의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량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이
경배찬송		1장	다	같	이
성서교독		64번 시148편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6장	다	같	이
기	도		1부	윤태영전도사	
			2부	박현규집사	
성경봉독		창세기22:10-14	인	도	자
찬	양	시편 51편	성	가	대
설	교	준비하시는 하나님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84장	다	같	이
헌금봉헌		헌금함에	다	같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금주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22:14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박범순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72) 6:15-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8)
찬송/ 430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디모데후서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1.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한 신발’(8)
 - 3.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8)

계시록 ‘비밀’ 독후감 수상자
고지영 노응상 노인숙 박지원 박혜진 송대순 전명숙 최민관 한현진

- 11월 계획.일정표
- 9일(주) 중고등부 친구초청예배
 - 10일(월) 총회 군선교위원회 총회
 - 11일(화) 노회 정책회의
 - 14일(금) 밤기도회
 - 16일(주) 추수감사절
 - 16일(주) 온세대연합예배. 소그룹의 날
 - 20일(목) 대덕구기독교협의회 야유회
 - 25일(화) 증경총회장회 간담회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이길연 이흥룡	윤태영 박현규	문서준/생일 감사
	2층 김현주 김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다음주	1층 김종기 오종수	이흥룡 김일남	김희중 천영숙/결혼감사
	2층 김현주 김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청소담당:2,3층 이번주(11,07) 5구역(박종례)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1,14) 6구역(김춘자)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8장 37절 제 목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활동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생각스티커 붙이기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치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10장 13절 제 목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2.다음주 기도는 최정선 선생님입니다. 3.새소식반 놀러오세요. 토요일 오후 3시 4층 유아부실 4.11월 한달 감사프로젝트합니다. 매일 수첩에 감사한 것 한 개 이상 적고, 시편 23편 암송하기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월초찬양기도회	1.11월 암송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2.11월부터 예배후에 성탄연습이 있습니다. 3.11월 9일(주일)은 친구초청예배입니다. 힘내어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봅시다. 4.11/13(목)은 수능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박주원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이사야 12:1-6 제 목 -공의 위에 세운 사랑	1.11/8(토) 11시 청년부기도회합니다.(5층 뽕엘룸) 2.11/9(주) 대표기도는 백지는 자매입니다. 3.11/9(주) 예배 후 성탄연습이 있습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천국과 지옥, 정말 존재하는가?

인간이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영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완전한 끝이라기보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가까운 것이며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돌로 만든 성이나 구름 위에 떠 있는 동화 같은 나라를 떠올리면 먼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자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천국은 단지 좋은 풍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처와 두려움, 외로움이 더 이상 우리를 잡아두지 못하고,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곳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든, 인정, 성취를 쫓지만 늘 어딘가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기독교는 그 공허함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봅니다. 천국은 단절이 완전히 회복된 세계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시간만 길어진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불로 타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히 고착된 상태”입니다. 바깥 세상의 어둠속에서 고립과 고통속에 갇히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독교가 지옥을 이야기할 때 단지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요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 없는 상태의 영원”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옥을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그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공포만은 아닙니다. 심판은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른 공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심판의 기준이 단순히 착한 일을 저울질만은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 회복을 통해 삶이 변화되었느냐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가?” 기독교의 답은 “선한 노력의 성취”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를 하나님이 먼저 놓으셨고, 우리는 그 다리를 믿음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기독교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도덕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죄”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가르침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가라앉는 사람에게 건넌진 구명줄을 붙잡듯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으로 동의 하는 것 뿐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저를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이 그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미래의 약속” 뿐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착함(선행)은 열매처럼 따라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열린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초대를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 있는 지금 순간에 초대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멀고 차가운 심판자라기보다, 돌아오는 자녀를 기쁘게 환대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근본적인 공허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스승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러면 옛모습이 비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독교의 관심은 사람에게 겹주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래의 천국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겠습니다.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한 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착함의 점수로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와 맡기는 결단으로 삶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점을 물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눔식 소그룹 디모데후서 2:14~26(11월 4일 본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 찬양하기 * 예수가 함께 계시니(새 325)

Focus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디모데후서 2:14~26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디모데후서는 순교를 앞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영적 리더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논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상이 공동체 내부에 퍼져 성도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신 디모데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며,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하라고 권했나요?(15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삶의 차이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버리라고 했나요? 또한 어떤 것들을 따르라고 제안했나요?(22~23절)

적용과 나눔

최근 하나님이 내게 피하거나 버리라고 하시는 것, 또는 특별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려 하는 이단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참된 일꾼은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 거짓을 분별해 냅니다. 세상 쾌락과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할 때 우리는 그것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때로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정욕을 좇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늘 깨끗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정욕을 못 박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진리가 가리키는 길을 온전히 따라 주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 소방관은 화재 예방과 진압뿐 아니라 각종 재난 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미국인의 비율이 청년층에서 4년 만에 처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헌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국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